

# “북한산은 성보박물관”

## 조계종 문화부 유적등 정밀조사 '북한산 불적' 이달중 발간예정

서울 시민의 휴식처로만 생각하기 쉬운 북한산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노천의 성보박물관이라 해도 좋을 불교 성지임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북한산 전역에 산재해 있는 불교유적을 조사해 온 조계종 총무원이 12월 초순 <북한산 불적>(가칭)을 발간하고, 1600여년의 불교사를 간직해 북한산의 역사를 현실로 끌어낼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부가 5월부터 9월까지 삼천사, 부왕사, 진관사, 진국사 등 북한산에 소재한 폐사지 11곳에 대한 실측·정밀조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북한산 불교유적·유물에 대한 최초의 자료집이다. 또

조계종 문화부의 자체 지표조사와 발굴 능력을 검증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산에 소재한 사찰들을 가장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선승 스님의 <북한지>에 따르면, 북한산성이 축조되면서 산성을 지키기 위해 21개 사찰들이 중수·건립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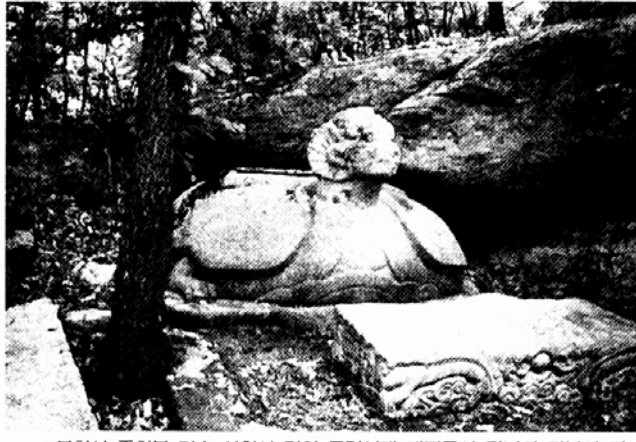
그러나 국녕사, 상운사, 노적사, 태고사, 진관사, 승가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찰들은 현재 폐사지로 남아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 기념물 제136호로 지정된 중흥사지만이 유일하게 복원·관리되고 있을뿐,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북한산 불적의 역사와 지리를 고증

사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게 가장 큰 특징인 이 보고서에는 폐사지 중에서 부왕사, 삼천사, 봉정암 등 관리가 시급한 폐사지 11곳의 유적과 유물을 집중 조사한 내용을 실고 있다.

여기에는 거란족의 침입 때 개성 송악산에 있던 태조 왕건의 관을 옮겨와 안치했다는 향림사, 고려시대 3천여명의 스님들이 거처하였다는 삼천사, 북한산성 수리와 관리를 전담했던 승군이 수행하던 부왕사 등 불교유적의 위치와 연혁 뿐만 아니라 폐사지와 관련된 역사와 인물에 대한 고증을 덧붙이고 있어, 당시의 불교유적을 생생히 그려낼 수 있게 한다.

또 정재훈(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단장) 김창균(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 정병삼(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 등이 논문을 수록해, <북한지>에 누락되었거나 이 책 이후에 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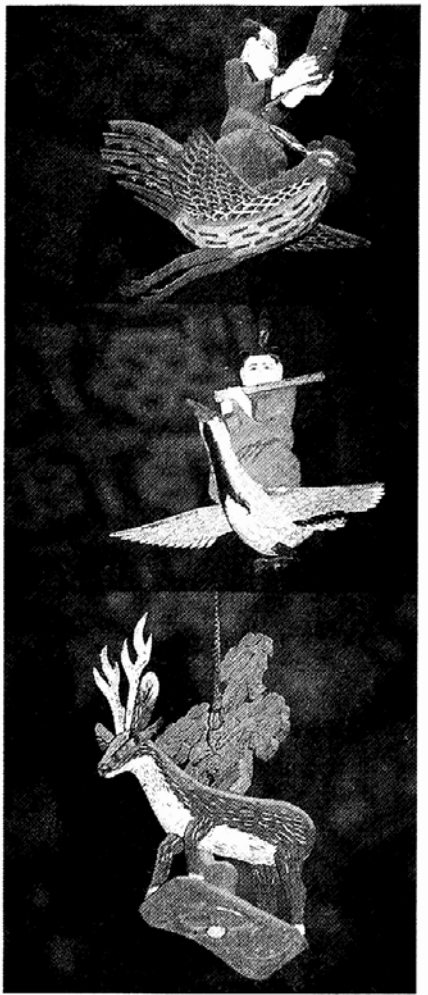
◊북한산 중흥봉 기슭 삼천사 터의 고려시대 대지국사 탐비의 귀부와 가침석. 사라진 비신은 너비 120cm 두께 30cm 높이 250cm로 추정된다.

된 비문, 기문, 시문 등을 지지, 문집 등에서 새로이 채집 보존해 놓아 학술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북한산에 있는 수많은 불교유적지와 그 유물들이 폐허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는 조계종 문화부 순명연구원은 “이번 조사가 북한산의 각종 불교유산들을 복원·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보고서는 “진국사 등 5개 사찰을 창건하고 북한산성의 축성과 수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선승스님의 사적비를 스님이 주석했던 중흥사터에 건립해야 한다”는 과제와, 북한산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불자들의 뒤통으로 남겨 놓는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전남 장성군 백양사 대웅전(지방유형문화재 43호) 대들보위에 모빌처럼 달려있는 학·사슴·봉황.

## 사진으로 보는 사찰의 美

### 박보화 사진집 사찰 36곳 소개

일상에 지쳐 있는 도시인들이 삶의 고단함을 훌훌 털어내고, 늦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사찰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

사진작가 박보화씨의 <산사의 미를 찾아서>(다른세상)는 박씨가 20년 가까이 전국의 유명한 사찰 36곳을 찾아다니며, 작은 연꽃 조각부터 저녁노을의 기운이 비치는 문창살의 신비함, 행자의 웃음에 이르기까지 산사가 품고 있는 정(靜)과 동(動)을 사진으로 담아낸 책이다.

3백여장의 사진과 해설이 곁들여져 있어 산사의 아름다움을 알뜰히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숨겨진 곳에 담겨 있는 사찰의 '미학'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사찰의 역사와 건축양식에 나타난 특징, 석탑과 범종에 깃든 종교적 의미도 상세히 기술했다.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영장리 고령산에 자리하고 있는 보광사의 목어와 대웅전을 비롯해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심왕산에 있는 개심사의 소나무 숲길, 충북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월악산 기슭에 위치한 신희사의 삼층석탑, 전남 순천시 승주읍 조계산 동쪽에 있는 선암사의 정원, 경북 영주시 부석면 봉황산 중턱에 있는 부석사 석등과 노을 등 산사의 주요 감상 포인트를 생생히 보여 준다.

20여년동안 전국의 사찰을 찾아 다녔다는 박씨는 “산사를 찾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탐하지 말고 없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야만 산사가 품고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눈을 들릴 수 있다”고 말한다.

## 목필의 단순미학 보기

### 정정웅 '수묵채색화전'

#### 7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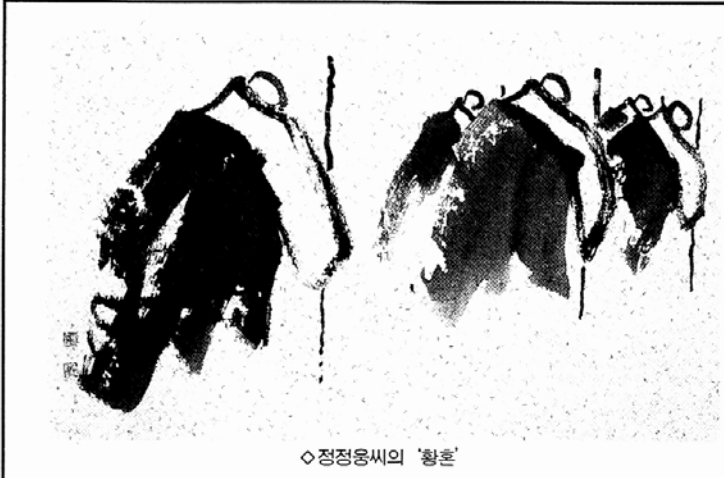
사물의 외관과 본질을 구분하는 분별심을 허문 경계를 체험케 하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나무는 나무대로 학은 학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머물며 조화를 이룬 세계를 담은 정정웅씨의 채색수묵화 작품전이 1일부터 7일까지 갤러리 서호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범어사에서 입적한 광덕스님의 추모행렬 뒷모습을 절제된 선으로 형상화한 '황혼', 앓은 채 열반한 방한암 스님을 유진 '좌탈' 등

정씨가 부산에서 과수원을 일구며 제작한 작품 40여점이 선보인다.

사물의 재현보다는 오히려 추상화된 선묘의 방식으로 예술세계를 가꾸고 있는 정씨의 수묵화는 내면의 풍경 그 자체이다. 그 내면의 풍경조차도 개인에게 국한된 사사로운 풍경이 아니라 한 인간이 한 세계를 품는 과정으로서의, 과정의 결과로서의 풍경이다.

이번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들의 한 특징은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도가 있으며 구도가 없고, 원근이 없으면서 원근이 있는 무위의 필행이 어떤 작품보다도 선(禪)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목필의 단순미학은 선승의 문인화를 보는 듯하다. 정정웅 씨는 78년 한국 남화의 대가 육산(沃山) 화백에게 수묵화를 배우고, 여백의 묘와 외형의 과감한 생략법을 통하여 창출하는 작품세계를 열어나고 있다.(02)723-1864



◊정정웅씨의 '황혼'

## 가릉빈가 어린이 합창단 15일 창단 연주회

수원지역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불교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창립된 수원 포교당의 가릉빈가소년합창단(단장 유익상)이 15일 오후 7시 수원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창단 연주회를 갖는다.

1부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절 재미 있는 법문'이라는 주제로 '이 작은 생명을' '보시하는 마음' '부처님이 계신 나라' '색종이 마을' 등 8곡의 합창곡을 선보이며, 2부에서는 '함께하는 음악회'라는 주제로 '찌레꽃' 'tonight' '연날리기' 등 11곡의 다양한 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또 가릉빈가어린이합창단, 테너 손형승씨, 국악인 박애리씨 등이 특별 출연한다.

창단공연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발성 훈련에 주력했다는 가릉빈가합창단 유익상 단장은 “공연 이후 권위있는 합창 콩쿨에서 바른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55명의 새싹불자들이 구성된 가릉빈가어린이합창단이 5월19일 불교인문문화에서 연주하는 모습. 이날 합창단은 공식적인 창단 전이었으나 대중가수 송시현 등 유명 가수보다 많은 박수를 받았다.

며 “선명하나 리틀엔젤스와 같이 국제수원시 주최로 오는 13일 열리는 밀레니엄 행사에 초청을 받았고, 내년중에 해외공연도 할 계획이다.

## '안계사' 명문적인 기와 발견

### 위덕대 박물관 경주 안계리사지 조사

석조여래좌상(경상북도 문화재자료 92호)과 석탑부재만 남아 있는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안계리사지에서 고려시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계사(安溪寺)라는 명문기와가 발견돼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위덕대학교 박물관 불적조사단(단장 김무성)은 22일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확인되지 않은 채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절터에서 '안계사(안계사)'라고 적힌 기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기와의 크기는 길이 23.5cm, 폭 13cm, 두께 2.5cm로 얇은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명문은 해서체로 양각돼 있다.

김단장은 “이 절터에 있는 석조여래좌상과 석탑부재의 뛰어난 조각수법으로 볼때 8세기 주요 사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계사는 신라시대인 8세기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높이 150cm의 석조여래좌상과 석탑부재 등이 남아 있으나 지금까지 절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동명을 본따 안계사 터로 불려왔다.



사찰·신행단체·게오임 등에서 떠나시는 해외성지순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시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외여행업허가번호 42-109

###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b>미얀마·태국·스리랑카 성지순례 11일</b> ₩2,334,000	<b>중국 북경 성지순례 5일</b> ₩680,000	<b>인도 성지순례 9일</b> ₩1,900,000
출발일 - 1월 14일 (선착순 20명 모집) 방콕-양곤-바간-만달라이-양곤-방콕-콜롬보-이누라다푸라-히바라니-폴른너우와-시그리야-멜볼라-랜드-콜롬보-방콕 (총 24개 성지당방)	출발일 - 12월 22일 (선착순 20명 모집) 벽운사·외불사·법해사·운거사·법원사·대종사·법운사 등 북경의 고찰 순례와 만리장성·이화원·자금성 등 관광	출발일 - 1월 23일 델리 - 이그라 - 기원정사 - 룸비니 - 쿠시나기르 - 바이살리 - 니란다 - 라지기르 - 보드기야 - 시르나트 - 바라나시 - 델리 (특급호텔이용)
그 나라만 생각하여도 마음이 설레이는 미얀마와 스리랑카..... 우리는 미얀마에서 높이 99.2m의 황금대탑이 있는 쉐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의 산실인 마하시 수도원, 2500여 개의 불탑과 사원이 남아 있는 파간의 아난다 사원, 세계 최대의 120m 와불을 모신 보디따다웅파고다, 크고 작은 불상 58만불을 모신 만보디파고다 등 총 15개 성지를 순례합니다.	북경은 원·명·청나라의 왕도답게 대단한 사찰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다음 8곳 사찰을 순례 코스로 정하였습니다. 5백 나한과 5불탑이 유명한 벽운사, 열반상이 모셔진 와불사, 수일관음을 비롯하여 중국 제일의 벽화가 법당에 가득 차 있는 법해사, 방산석경으로 유명한 운거사, 천불 석주가 여럿 있는 신비의 동굴 뇌음동, 천불좌대대례상 및 각종 석불이 모셔진 법원사, 2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종과 수많은 종들을 접할 수 있는 대종사, 10m가 넘는 나무로 조성한 미륵대불이 모셔진 운화궁 등을 참배합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만리장성·이화원·자금성과 골동품 거리로 유명한 유리장도 찾아드립니다.	인도·네팔 성지순례 16일 ₩2,780,000
스리랑카에서는 아쇼카왕의 아들인 마힌다 왕자가 심었다는 보리수를 비롯하여 이누라다푸라 대정사,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뽀로나워 와불상과 세계 10대 불상 중 하나인 아유가나 입불상, 시그리야에 있는 석굴사원의 부처님들과 아름다운 벽화,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는 불족봉(佛足峯), 스리랑카 최대의 사찰인 불치사(佛齒寺) 등 10여 곳의 성지를 탐방합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번 특별순례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출발일 - 1월 11일 불교 8대성지, 신치대탑·아산타·멜로라석굴 및 히말라야 일출 카트만두·포카라 등 네팔 주요 성지 탐방 및 주요 불교성지 총망리
때묻지 않은 이들 나라에서 정말 감동적인 순례가 되리라 자신하면서, 감히 이 성지순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청하여 봅니다.	◆ 출발조건 : 국제선 항공료, 현지 국내선 항공료, 호텔, 현지차량, 식사, 현지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공항세, 관광세, 1억원 보상한도 보험료, 각종 비자비 포함(단, 여권인지는 별도), 선택관광 및 튀은 일체 없습니다.	인도·네팔·태국 성지순례 12일 ₩2,100,000
		출발일 - 2월 21일 방콕-카트만두-니가르코트 일출-룸비니-기원정사-쿠시나기르-바이살리-니란다-라지기르-보드기야-시르나트-바라나시-카슈라호-아그라-델리
		<b>중국 상해·보타산·항주·소주 6일</b> ₩920,000
		출발일 - 1월 4일 상해 옥불사·용화사·관음성지 보타산·영피 아육왕사·진동사·항주 서호성경·영은사·비례봉 석불동굴·소주 한신사·호구·졸정원·상해